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확대 추진

-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 신탁기금별 주요 지원분야 및 후보사업, 우리기관 수주사례 등 공유 -

기획재정부는 5.19일(월) 15:00,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주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은 국제 분쟁 이후 재건 수요, 기후변화 지원 등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우수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신탁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들이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신탁기금 참여 확대가 우리기업의 후속 인프라 사업 수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출연중인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별로 기금의 주요 지원 분야, 최근 승인사업 및 후보사업안 등을 상세히 공유하였다. 관계 부처에서도 디지털 행정, 물 관리(상·하수도) 등 우리 기관, 기업들이 해외 경쟁력 있는 세부 분야 등을 설명하며 신탁기금의 효과적 운용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을 수주한 공공기관들에서도 참석하여 구체적인 수주 절차와 경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시사점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국제금융기구 조달 관련 민간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신설(5·10월, 연 2회)했다고 설명하며, 국제금융기구 진출 전략부터 세부적인 입찰서류 작성방법까지 교육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조달 전문가 육성 등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범진완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him1229@korea.kr)
			사무관	윤희연 (wyoon89@korea.kr)

